

설

H
A
P
P
Y

N
E
W

Y
E
A
R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가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송가 560장

1.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2.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3.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후렴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2024 설 리

가 정 예 배 문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

예배 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 앙 고 백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2023년에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24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다 같 이
말 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다 같 이
찬 송 찬송가 560장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다보니 내 자신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 비난의 소리와 우려의 소리, 걱정 of 소리를 보고 듣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더욱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과 가르침,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진리인 참된 복음을 말합니다. 곧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은 그대로 힘써 행하며,
삶으로 녹아낼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천국백성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천국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종말론적인 구원 즉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리의 복음을 듣고 힘써 행하고 실천함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와 헛된 사상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신앙을 지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